

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, 과반수가 “글썸...”

(주례) 금융 플랫폼 기획조사- '24년 2~3월 이슈

- 청년희망적금 만기(예정)자 44%만 도약계좌 가입(의향)
- ‘일시납입 의향 없다’ 비율 45.9%로 연계가입보다 많아
- 일시납입 안 할 경우 수령액은 ‘정기예금으로 예치’ 최다
- 갈아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‘예치 기간이 너무 길어서’...

(주례) 금융 플랫폼 기획조사 개요

- 조사기간 : 매주 월요일~목요일(4일간)
- 조사방법 : 이메일/모바일 조사
- 조사대상 : 전국 20~69세 성인
- 조사표본 : 매주 500명 이상
- 표본 프레임 : 약 86만명의 비편향 패널(Unbiased Panel)
(자발적 선택/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확률적 표본 추출에 따라 선정된 패널)
- 표본추출
1단계 : 성·연령·지역별 표본수 할당
2단계 : 표본 프레임에서 성·연령·지역별 할당 후 무작위 추출

컨슈머인사이트는 대규모 온라인패널을 통해 금융, 자동차, 이동통신, 쇼핑/유통, 관광/여행 등 다양한 산업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수집된 서베이 데이터는 금융·통신 등 다양한 빅데이터와 융복합 연계하여 각 데이터의 한계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개념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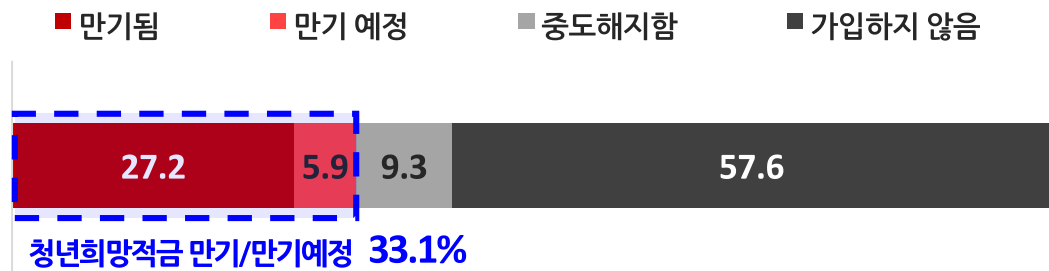
특히 최근에는 100% 모바일 기반으로 전국민 표본 대표성을 가진 조사 플랫폼 ‘국대패널’을 론칭하고 조사업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습니다.

— ‘청년희망적금·청년도약계좌’ 연계의향 44% vs 46% 의향 없음

- 만 20~34세 소비자 중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수령(27.2%)했거나 만기 예정(5.9%)인 사람은 3명 중 1명꼴(33.1%)임
※ '24년 2월 4주~3월 4주차 기준
- 이 가운데 만기액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했거나 납입의향이 있는 비율은 44.0%에 불과함
- ‘일시납입 의향 없음’ 비율이 45.9%로 일시납입 의향보다 높음(‘납입대상 아님’ 10.1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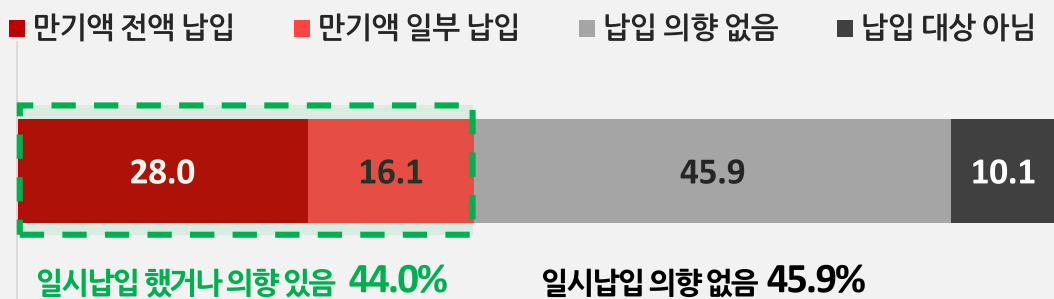
[그림1] 청년희망적금 가입 여부

(Base : 만 20~34세 청년 658명, 단위 : %)



[그림2]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(연계가입) 경험/의향

(Base :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/만기자 218명, 단위 : %)



질문)

- 귀하께서는 『청년희망적금』에 가입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?

- 귀하께서는 만기된(만기 예정인) 『청년희망적금』의 수령액을 『청년도약계좌』로 일시납입(연계가입)할 의향이 있으십니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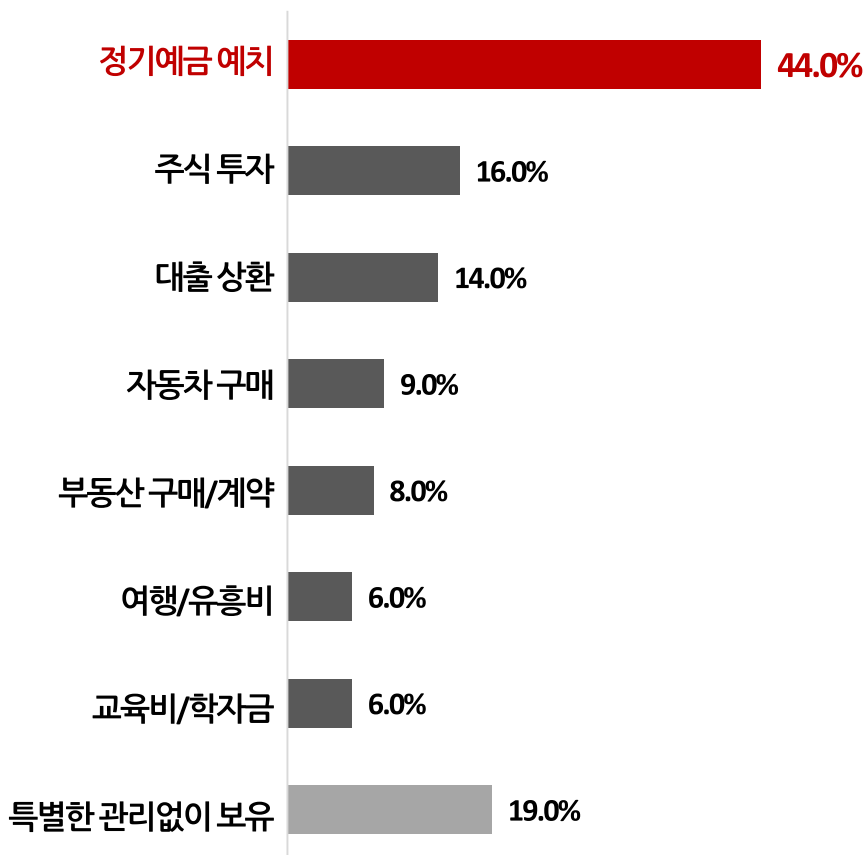
※ 이미 일시납입(연계가입)을 하신 경우, 어떻게 납입하셨는지를 응답해주시요

청년도약계좌와 갈아타기 대신 '정기예금' '주식투자' '대출 상환'...

-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의향이 없는 만기(예정)자의 44.0%는 만기 수령액을 일반정기예금으로 예치하려 함
- 특별한 사용목적 없이 유사한 안정형 상품을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청년도약계좌에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

[그림3] 청년희망적금 만기액 사용(예상)처

(Base :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비의향자 100명, 단위 : 복수%)



※ 5% 미만 응답은 제외한 결과임

질문)

『청년도약계좌』로 일시납입(연계가입)하지 않은 『청년희망적금』의 만기 수령액은 어떻게 관리/사용하실 예정이십니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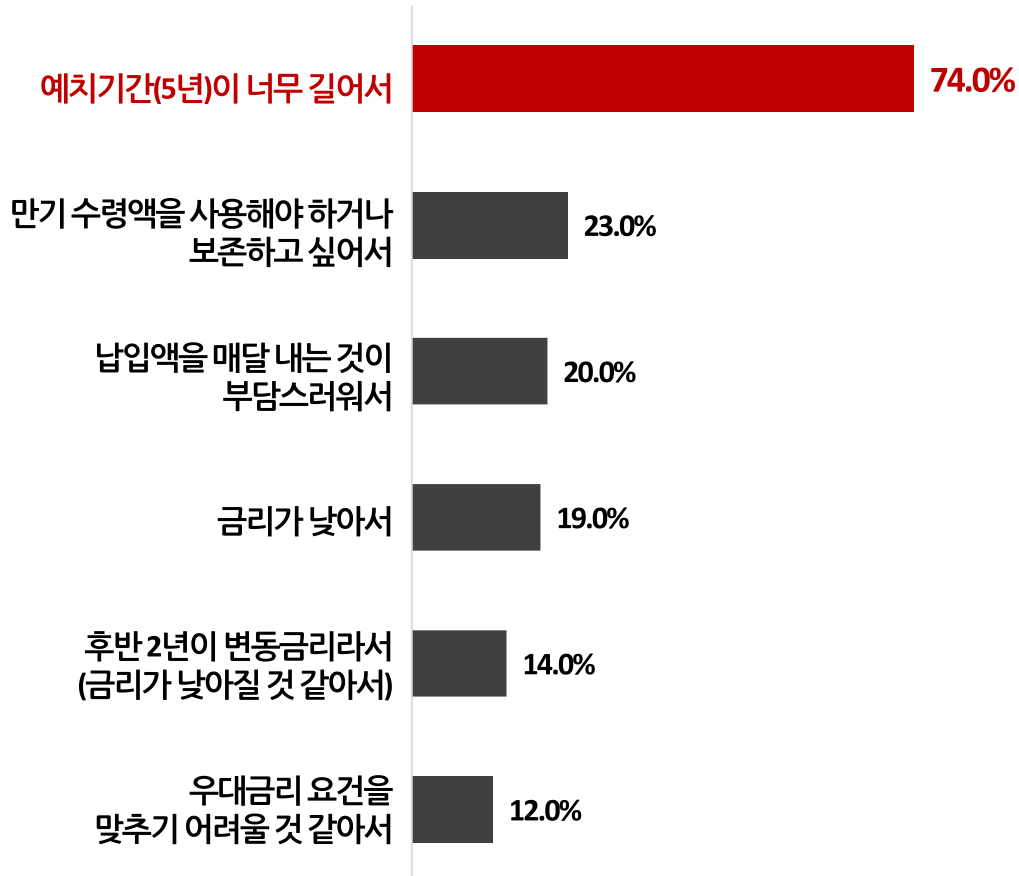
※ 이미 만기 수령액을 관리/사용하고 계신 경우, 어떻게 관리/사용하고 계신 지를 응답해주시시오

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기피 이유는 “너무 오래 넣어야 해서...”

- 도약계좌 가입을 꺼리는 주된 이유는 ‘예치기간(5년)이 너무 길어서’였음. 임신, 혼인, 출산 등으로 금융상황이 유동적인 청년기에 장기간 계좌 유지가 부담인 것으로 보임
- 3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개선책(예치기간 부담 완화 등)으로 연계가입 증가 여부 관심

[그림4]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(일시납입) 비의향 이유

(Base :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비의향자 100명, 단위 : 1+2순위%)



질문)

『청년도약계좌』로 일시납입(연계가입)할 의향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

참고)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안내

- 중도해지시 지원강화, 특별중도해지 사유 추가 등 **장기간 예치에 대한 부담 완화**
- 가구소득 요건 완화, 병역이행자 가입지원 등 가입요건 확대

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 주요내용

더 좋아진 청년도약계좌 주요내용 살펴보기



청년희망적금 2월 만기자는 3월 까지, 3월 만기자는 4월 까지 일시납입을 위한 연계가입 신청 가능

01

가구소득
요건 완화

가구소득 중위 180%에서 250% 이하로 개선

가구소득 요건*은 3월 가입신청 기간(2.22일~3.8일)에 신청한 청년부터 적용

* '22년 기준 중위소득 250%(연)

(1인가구) 58,344,360원, (2인가구) 97,802,550원, (3인가구) 125,841,030원, (4인가구) 153,632,400원

02

중도해지시
지원 강화

3년 이상 가입 유지시에도 혜택 적용

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

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%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추진*

* 비과세 적용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('24년내, 잠정), 정부기여금 지급 관련 예산 확보 등 필요조치 지속 추진

03

특별중도해지
사유 추가

특별중도해지 사유 혼인, 출산 추가

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사유*에 '혼인'과 '출산'이 추가되어,

이 사유에 해당하여 특별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 지급

* (기준) 생애최초 주택구입, 가입자의 퇴직, 사업장의 폐업, 가입자의 사망·해외 이주, 천재지변,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

04

병역이행 청년
가입 지원

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 가능

소득기준연도(전전년도 혹은 직전년도)에 군복무* 이력이 확인되는 청년은 3.25일부터 가입신청 가능

* 「병역법」상 현역, 상근예비역, 의무경찰, 의무소방원, 사회복무요원

* 「군인사법」상 사관생도, 사관후보생,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



출처)

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, 「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」